

한국에서의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 그 외연과 내포 —

김춘미(金春美)

1. 들어가며

오늘 저는 국경을 넘어 한국에 성공적으로 상륙한 하루키 문학의 한국에서의 외연과 내포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한국에 수용된 것은 1989년에 『노르웨이의 숲(ノルウェイの森)』이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번역되면서부터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까지 근 500만부가 팔리는 공전의 룡 셀러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루키 현상이라고 불리는 한국에서의 수용은 『노르웨이의 숲』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초기 수용의 주 리셉터(receptor)라고 할 수 있는 386세대(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에 대학에 다니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30, 40대의 세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도 이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386세대는 왜 하루키 문학에 매료되었던 것일까요?

이 문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고모리(小森) 선생님의 『무라카미 하루키론』을 번역한 사람으로서 고모리 선생님의 견해, 특히 제5장 『해변의 카프카』와 전후 일본사회』에서 피력하신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가 일본에 의한 침략과 지배를 받은 피식민지민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러한 논리에 기대는 면은 없는지 자기검증과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피식민지민의 자격지심은 아닌지 자계하는 갈등을 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예전에 제가 쓴 글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일본문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본학 전반에 해당하는 것이겠지만 36년간 이어진 일본의 식민지배가 음으로 양으로 대일감정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상황 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합니다. 객관성이 보장된 학문적 연구가 타 지역연구에 비해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이상으로, 그 어려움 자체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만큼, 즉 연구가의 주체나 자아의 존재방식을 끊임없이 묻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한국에서 일본연구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에 자주적 근대화의 길을 저지당하고,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사회로서는 일본문물의 유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편협한 민족주의자의 시각이라 하더라도, 같은 한국인으로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적극적인 면을 지닙니다. 일본에 과잉친화하려는 주체와 그 동화를 경계하는 주체 양쪽이 제 안에 동거 또는 잡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식민지국가가 선진국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경우,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구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일본을 연구할 경우, 연구자 개인이 이러한 복잡한 양상에 놓이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연구자로서 단순히 한국국민을 대표하는 듯한 착각, 민족주의에의 안이한 접착에 거리를 두면서 그러한 문화마찰의 존재양식을 명확히 하는 일 또한 한국 내 일본연구의 학문적 객관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¹⁾ 오늘의 합동연구회가 그 일환으로 기능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1) “또한 이 점에 관련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본에서의 이러한 근대일본비판, 근대일본문학 비판에 한국인 연구자나 유학생이 안이하게 동원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서구의 연구자나 유학생보다 한국이나 중국의 연구자나 유학생에게 그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아카데미즘이나 지식인사회에는 근대일본의 피해자, 혹은 그 피해의 고발자로서의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라는 “타자”를 만들어내는 풍조가 매우 뿌리 깊게 존재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인이나 중국인이 근대일본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받은 피해를 고발하고 그것을 일본인이 엄숙히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일정한 가해와 피해사실이 인정된다면 상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겠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 “분노하는 한국인”의 이야기를 일본의 지식인사회가 “지당한 말씀”이라고 경청하고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전혀 반대여서, 고발하고 고발당하는 관계가 긴장감을 수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어진다면, 그것은 쌍방의 내서 널리즘을 한 층 더 고양시키고 쌍방의 지식인사회의 지적 타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현황과 전망」 발표문(국제일본문학연구센터, 2001년)

이런 이야기를 길게 드린 것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성공적인 한국 상륙이²⁾ 그 주된 리셉터인 386세대 뿐 아니라 모든 한국인에게 이례적인 현상임을 명확히 해두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문학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한국에서 하루키가 예외적으로 환영받았다는 사실에 한국에서의 하루키의 위상이 단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한국의 하루키 연구가들과 연구대상인 하루키 작품과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루키의 소설이 일본의 감성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그 문화적 의미를 알아보는 일 또한 필요한 작업일 것입니다.

하루키 현상이 한국에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정착된 사례를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하루키의 작품이 학생들의 필독서가 되어 있는 사태를 우려하는 「문학의 전략-무라카미(村上) 현상을 놓고」라는 논문이 2006년 5월 25일 한국예술원 세미나에서 유종호 연세대 국문과 석좌교수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유 교수는 지난 10년간 대학 초년생의 문학 독서 성향을 조사하여 왔다고 전제한 뒤에, “무라카미 소설을 많은 독서목록 중의 하나로 다룬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곤혹스럽고 걱정인 것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가장 감명 깊거나 흥미 있게 읽은 책으로 그의 소설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중략) 무라카미의 소설은 작가가 이미 사회의 엘리트라는 자부심을 상실했거나 예술적 포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시대의 언어 상품이다. 그것은 문학의 죽음을 재촉하는 자기 파괴적 허드레문학이다. (중략) 『노르웨이의 숲』에 중독된 독자는 그 작품의 화자가 읽고 있는 형성소설 『마의 산』을 끝내 읽어내지 못하고 말 것이다. 마음의 귀족되기는 틀렸지만 그렇다고 흥 될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고 말하고 있는데,³⁾ 예술원이라는 근엄한 장소에서의 세미나에서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2) “일본문학은 우리나라에선 여타의 다른 외국문학과는 달리, 아직도 객관적인 분석이나 향수의 대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일본문학에 대한 거리감 내지 상대적 경시 이면에는 당연히 지난 시절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아픈 역사적 기억이 버티고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일본문학은 무조건 서구문학보다 한 수 아래로 놓고 보려는 분위기가 작용한 면도 없지 않았다. (중략) 이런 가운데 하루키는 나쓰메 소세키 이후 아쿠타가와를 거쳐 다자이 오사무나 미시마 유키오, 아베 고보, 나카가미 겐지 등, 기라성 같은 여러 일본작가들도 달성하지 못한 한반도 상륙을 성공리에 마친 거의 유일한 작가가 되어 버렸다.” 남진우 「《슬픈 외국어에 담긴 뜻》」 『하루키 문학수첩』(문학사상사, 1996) pp.457~458

석학이 하루키문학 현상을 다루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은 하루키 현상이 현하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의 예로서 한국칸트학회 회장인 강영안 교수는 작년에 간행된 『포스트모던 칸트』 서문을 하루키의 『1973년의 핀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교수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핀볼의 주인공은 여자아이들과 노닥거리는 데 칸트를 사용한다.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뻑 젖으면서 적당한 말을 찾았다. ‘철학의 의무는’ 나는 칸트를 인용했다. ‘오해에서 생기는 환상을 제거하는 데 있다. 배전반이여. 저 수지 바닥에서 편안히 잠들라.’”

이것은 ‘유식한 문자 한 구절’로 인용되고 있다. 이렇게 칸트는 오늘날 세상의 바닥을 기어 다닌다. 아무 여자아이들하고 잠자리에서 깨어나는 젊은이의 아파트 구석에 굴러다니며 할 일 없이 무료할 때 한 마디 인용되기 위한 칸트. 이제 칸트는 바닥 생활이라는 새로운 운명을 살아나가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는 진실에 대한 우울한 교훈이 아닌가? 흔히 말하는 모더니즘의 기획이 흠바닥에 떨어진 시대에 근대 계몽주의의 완성자인 칸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⁴⁾

논조야 어떻든 위의 사례들은 한국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 하루키가 대표적 사례로 제시될 만큼 그의 작품이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작년 도쿄(東京)에서 열린 <하루키를 둘러싼 모험>이라는 심포지엄에서 한국에서의 하루키 리셉터(receptor)로서의 386세대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저는 하루키 문학 수용의 외연으로 과거의 한국과 일본의 불행한 역사가 초래한 일본문학·문화 전반에 대한 거부감과 한국인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문학관 양쪽의 극복 및 거기에 함의되어 있는 한국의 정치·사회적 동향과 문학관의 변화를 수용의 내포로 포착하여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 유종호 「문학의 전략—무라카미(村上) 현상을 놓고」 예술원 세미나 발제문 (2006. 5. 25.) 『현대문학』(2006. 8월호) 203, p.207

4) 강영안 「서문」, 한국칸트학회편 『포스트모던 칸트』(문학과지성사, 2006), pp.5~6

2. 한국에서 문학이란 무엇이었는가?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기인하는 일본문학, 문화전반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일본문학, 특히 사(私)소설이라고 불리는 장르에 대해 한국인이 느끼는 위화감을 덧붙여야 할 것입니다.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불행한 역사적 사건과 36년에 걸친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걸쳐 한국에서 문학은 정치의 방수로(放水路)로 기능해 왔습니다. 정치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예리한 감수성은 한국문학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시대의 지배윤리였던 유교이념은 지배계층인 선비(士大夫)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들은 요새 말로 하자면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지식인에 해당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선비정신이 탄생시킨 시(詩)와 시인(詩人)의 불가분성은 이 나라 작가들에게 지식인으로서의 태도표명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0년대에도 한국에서는 작가들의 커미트먼트 문제가 참여 문학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1992년 동경 YMCA에서 열린 제1회 한일 문학심포지엄은 <‘차이’의 재확인·공통의 논의의 장 모색>(아사히신문(朝日新聞)), <일한문학관의 ‘분단’ 부각>(닛케이(日経)), <한일의 문학적 토양의 이질성 확인>(한국일보)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 열린 심포지엄에 대해 구리하라 유키오(栗原行夫)는 “한국작가, 시인의 문학적 체험에 필적하는 것은 전후체험의 철저한 응시에서 시작된 노마 히로시(野間宏)나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에 의한 전후문학 밖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⁵⁾ 시바타 쇼(柴田翔)의 『그래도 우리들의 나날(されどわれらが日々)』을 한국측 작가들이 비판의식과 주체의식이 뚜렷한 작품으로 높이 평가한데 대해, 일본측 참가자인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는 야마다 에이미(山田詠美)라든가 고바야시 교지(小林恭二) 같은 작가들은 그런 단어 자체를 안 쓸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⁶⁾ 위의 담론들은 한국문학이 추구하는 것이 진지한 고뇌에 꿰뚫린 사회성을 지니는 고발문학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5) 안우식 「상호이해의 첫발 일한문학심포지엄을 되돌아보며」 『스바루(すばる)』(1993. 4). p.155

6)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 좌담회 「문학중심주의를 둘러싸고」 상계서, p.169

나카가미 겐지(中上健次) 편, 안우식 역 『한국현대단편소설』(1985), 후루야마 고마오(古山高麗雄) 편 『한국현대문학13인선』(신초사(新潮社) 1981)의 <해설>은 한국문학과 일본문학의 문학적 지향의 상이성을 가시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카가미 겐지는 <해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일본에서 찾아보지 못했던 제1차 안보세대의 감성이 바다 하나 건너 이웃나라인 한국에 에너지 넘치며 눈부시게 존재한다는 얘기가 된다. —중략— 직감적으로 말한다면 제1차 안보세대는 고도성장으로 감성의 해체에 직면하여 언어화하는 방식을 상실하였는데 반해, 한국의 제1차 안보세대와 같은 세대의 작가들은 조국분단, 학생혁명 나아가 월남과병과 같은,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격동을 거치며 싫든 좋든 감성을 단련시켜 언어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일본에서 전후문학이 왜소화되어 종언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는 표현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산적해 있다.”

후루야마는 <해설>에서 최근의 일본소설에서 부족하게 느끼던 것이 충족되어 있다고 하면서 “모티프의 강렬함, 거기에서 들려오는 절실한 목소리는 일본 현대문학의 쇠퇴해 가고 있는 어떤 부분을 상기시키나?” 동시에 한국문학 하나 하나의 작품은 그 자체로는 수준이 높고 감동적이지만 전반적인 문학상황은 장르가 좁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일본작가의 해설은 한국문학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으며, 왜 독자들이 재미를 제공하는 경쾌한 하루키 문학에 끌렸는가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⁷⁾ 반일과 반공이 상해 임시독립정부 이래 한국의 정체성 구축의 중심 이데올로기였듯이 부정적 함의의 레토릭으로 구축된 일본문학관은 곧 한국문학의 정체성 구축에 깊이 연관됩니다.⁸⁾ 그런 한국에서 하루키 문학이 이만

7) 조 쇼키치(長璋吉)는 최인호의 『고래사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연설 장면을 보고, 반사회적 감정을 그대로 표출시킬 줄 아는 이 작가마저도 한국사회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도덕관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하는 감상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조 쇼키치(長璋吉)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 『조선·언어·인간』(河出書房新書, 1989) p.277. 포스터모더니즘 작가라고 불리며,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가 이제까지의 일본인의 한국문학관은 낡았다, 이제부터는 동시대의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평가한 장정일도 「아담이 눈 뜰 때」(新潮社, 1992) 마지막 부분에서 사회비판적인 견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8) “1970년대의 ‘비윤리적, 경박, 피상적, 잔인, 통속’ 등의 일본문학관은 당시의 아마 지금까지

큼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은 주목을 요합니다. 세키구치 나쓰오(関口夏央)는 지식적 대중이 주류가 되고 비계급화, 평준화 되어가는 한국사회에 나타날 문학교조만간 적든 많은 간에 일본과 비슷한 색조를 띠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⁹⁾,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루키 수용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이 『근대문학의 종언(近代文学の終焉)』에서 한국문학이 끝난 것을 하나의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사회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문학조차도 하루키 문학으로 표상되는 댄디즘으로 대체된 데에 대한 실망의 표명일 것입니다.¹⁰⁾ 하루키 문학의 무엇이, 왜,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일까요?

3. 386세대와 하루키

하루키 문학의 수용양상을 밝히는 것은 90년대 한국문학연구에 필요불가결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진우는 젊은 작가들의 경우 상당수가 음모양으로 하루키에게 많은 부분을 빚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¹¹⁾ 무엇이, 왜, 당시의 우리 젊은 작가들을 매료시켰는지 좀 더 정치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남진우는 보들레르에게 미학적이며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의의까지 지닌 그 무엇이었던 댄디즘 개념을 참조하여 하루키 소설의 주인공들한테서 부르주아의 세속적인 물질주의에 대한 반발과 민주주의적 평준화보다 엘리트즘(elitism)에 경도하는 정신적 귀족주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선이 흐려지고 일상생활의 심미화현상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게 되자 댄디즘이 빠르게 사회 저변에 스며들

도 1970년 80년대의 한국의 일반지식인들의 견해였다. 배척의 윤리는 도덕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비윤리성은 제국주의 폭력을 초래하고 “저속”하고 “통속적” 문화를 형성했다는 논리이다.” 한국문학에게는 일본문학과 정반대되는 방향성이 부여되었던 것이다.” 윤상인 「한국인에게 일본문학은 무엇인가」 『일본문학 번역 60년 현황과 전망』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발표문(2007.1.26.)

9) 세키구치 나쓰오(関口夏央) 「한일문예가의 ‘이질성’」 『스바루(すばる)』(1993.4.) p.159

10)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근대문학의 종언(近代文学の終焉)』(인스크립트, 2005) p.41

11) 남진우 「오르페우스의 귀환」 『숲으로 된 성벽』(문학동네, 1999) p.410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가 이념의 시대였다면 1990년대는 탈이념의 시대이고, 1980년대가 광장의 시대였다면 1990년대는 밀실의 시대이고, 1980년대가 공동체의 꿈과 연대에 대한 희망이 지배하던 시대였다면 1990년대는 고독한 단자(單子)의 시대였습니다.¹²⁾

인기작가인 윤대녕 씨는 386세대의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6세대는 문화적으로 아무 데에도 소속되지 못한 과도기적 존재이고 소속감을 못 가진 세대이다. 농경사회의 마지막 아들이고 시골에서 자라 서울에 올라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아파트라는 곳에서 전혀 알 수 없는 아버지라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세대이다.¹³⁾

386세대의 기본은 남북분단과 식민지시대이며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현실 비판적인 작품을 안 쓸 수가 없었다”고.¹⁴⁾ 도대체가 대학에서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반동으로 몰리던 시대였습니다. 학생들은 민주화운동에 온 몸을 던지고 민주주의와 학생운동이라는 거대담론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운동이 성공하고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1989년에는 베를린의 벽이 무너지고, 시대는 크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한국작가들은 미처 그 상황을 흡수,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겠습니까. 한국의 작가들이 무엇을 써야 하는지,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있는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루키가 그 공백을 매우듯이 등장한 것입니다. 1990년 이전은 반일교육으로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기 때문에 일본문학에 대한 호기심은 있었지만 일부러 안 읽었듯이, 1980년대에 대학 재학 중이던 386세대에게 일본문학은 무시 또는 침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일본문학을 안 읽은 386세대가 하루키를 접했을 때 충격이 더 컸던 것이라 하겠습니까. 그때까지 읽어온 작품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12) 남진우 「견딜 수 없이 가벼운 존재들 덴디즘과 1990년대 소설」 전거서, pp.58~59

13) 이 부분은 2007년 2월28일의 작가 윤대녕 씨, 시인 이문재 씨와의 대담을 논자가 정리한 것이다.

14) 하지만 아직까지 분단문제와 정치논리는 중요한 소재이다. “쉬리”, “JSA”, “태극기를 휘날리며”, “웰컴 투 동막골” 등 최근 몇 년간 히트한 영화의 소재가 분단문제이고 관객의 대부분이 20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직도 분단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개인이 있었고 도시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억압해 온 욕망에 언어를 주고 싶다, 거대담론에서 개인으로 회귀하고 자유롭고 싶다고 회구하던 한국의 젊은 작가들에게 하루키 소설은 정치 사회소설이 아니라도 그때까지 배제해온 연애소설이라도 문학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준 것입니다. 하루키 문학에는 거대담론이 아닌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개인적 윤리에 대한 물음이 있었고, 일상의 발견이 있었으며 개인의 고유한 경험, 자발적 기억에 의한 감각이라는 유니크성은 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5년 중반까지 하루키의 문체를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 작가들이 수용한 것은 그 유니크성이 언어적 차별성을 넘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작품성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되는데, 가장 독창적인 문학은 자기를 파악하게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하겠습니까. 하루키는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끌어낸 작가로 평가되며 그의 작품에서 공허감, 상실감, 방향을 본 386세대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 뛰어난 작가로 수용되었던 것입니다. 남진우 또한 하루키의 문학적 재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이미지와 상징을 긴밀하게 짜 넣는 능력은 동세대 작가에게서 좀처럼 찾기 어려운 탁월한 산문가로서의 자질이라는 것입니다.¹⁵⁾ 동시에 1990년대라는 이데올로기적 침체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하루키 문학이 우리 정서에 호소력 있게 다가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면도 있을 겁니다. 최성실은 “하루키 소설에서 일본의 1960년대 학생운동 세대를 사로잡았던 이상주의에 대한 환멸과 정치적 비판주의 및 내면으로의 퇴각이란 기본인자를 검출해 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하루키 소설과 우리 독자들을 이어주는 이런 정서적 동질성, 혹독한 정치 하에서 주요 문학 계간지가 줄줄이 폐간되고 몇몇 무크지가 그 자리를 힘겹게 메워주던 시절에 한국문학을 이끌어가던 당시의 젊은 작가들이 공통경험으로 공유하고 있는 무라카미 문학이란 무엇인가란 중요한 질문이라 하겠다”고 적합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¹⁶⁾

15) 주로 1970, 80년대의 일본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하루키 소설이 이데올로기적 대립구도가 무너지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가속적으로 탈정치화가 진행되는 한 편,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물질적 풍요가 정착된 단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바로 그러한 측면이 ‘불의 연대’를 통과하여 1990년대라는 이데올로기적 침체기에 접어든 우리 정서에 호소력 있게 다가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남진우, 전거서, p.411

일본만화와 게임은 들어와 있었지만 그것을 하루키가 정당화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86세대는 편의점세대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편의점이 문을 연 것은 1989년 5월 <7ELEVEN>에 의합니다. 편의점은 24시간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종래의 시장보다 밝고 깨끗하고 모던한 공간입니다. 하루키 문학은 당시의 젊은이들에게 바로 편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편의점이 등장한 후 하루키가 등장하고 마치 하루키를 기다렸다는 듯이 재즈 붐이 일어나고, 스파게티가 등장하고, 와인을 마시기 시작하는 등 모든 면에서 한국사회는 ‘문화적’이 되어 갑니다. 『상실의 시대』는 1995년대 젊은이들의 해방구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독자와 작가가 함께 호흡했다면 1990년대부터 작가와 독자가 괴리되기 시작하면서 독자들이 일본문학에 쏠림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 하루키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10대, 20대가 하루키 문학을 애독하는 이유는 가족이나 사회 시스템에서 고립된 개인으로 자기만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새로운 트렌드인 ‘글루미족’이나 ‘나홀로족’을 하루키 문학이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하기는 일찍이 가와모토 사부로(川本三郎)는 80년대에 미국에 등장한 <노 제너레이션(no generation)>이라는 명칭으로 하루키 문학을 적합하게 읽고 있습니다.¹⁷⁾ 남진우가 말하는 댄디즘을 쫓는 젊은이들의 등장이라 하겠습니다.

16) 그 실례로 최성실 씨는 다음과 같은 작가들을 들고 있다. “1980년대의 소설과는 달라진 지형도 속에서 장정일의 『아담이 눈 뜰 때』는 정치적인 것이나 혁명적인 것보다는 기성체제와 타협하지 않는 개인의 자의식이 강한 소설이며, 박상우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 정치적 환멸을 그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구효서의 일련의 단편소설이 도시공간을 배회하는 일상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하루키의 소설과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최성실 「한국 현대문학과 무라카미 하루키」, 『일본문학 번역 60년 현황과 전망』 경원대학교 아시아 문화연구소 프로시딩(2007. 1. 26.) p.36, p.38

17) “no generation에 속하는 사람들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고기도 먹지 않는다. 엑서사리도 전혀 하지 않으며, 방에 고인 열이 밖으로 발산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다. 하루 밤에 몇 번 했나를 자랑하는 것은 촌스러움의 극치.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 밤에 몇 번 참았는가가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다. 인생을 한 개의 축소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지고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가와모토 사부로(川本三郎) 「무라카미 하루키의 세계 1980년의 no generation」 『스바루(すばる)』(1980.6.) p.222

자국의 특수한 상황보다 후기 자본주의사회의 도시생활을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문화상품 이미지로 그리는 하루키 문학은, 세계가 후기자본주의에 편입되면 될수록 국경을 초월한 문화상품으로의 과급력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하루키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미국 체재라고 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1995년 9월 19일자 한국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70년대 이후 정신적인 기둥이 없는 시간을 살아왔다. 앞으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역사로부터 배울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역사와 모럴 문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995년의 한신(阪神) 대지진과 도쿄의 지하철 사린사건을 계기로 디태치먼트에서 커미트먼트로 전환한 것은 그 생각의 하나의 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4. 결어

오늘 저는 『상실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386세대 문제를 중심으로 하루키 초기작품의 한국에서의 수용양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고모리 선생은 하루키에게 기대했다가 배반당한 마음에 『무라카미 하루키론』을 쓰셨다고 하시지만,¹⁸⁾ 하루키가 등단한 무렵,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요시모토 다카아키(吉本隆明),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을 비롯한 많은 일본평자들이 하루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와모토 사부로(川本三朗)는 하루키 문학 애독자임을 자인하고 있고¹⁹⁾ 나카노 오사무(中野収)도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²⁰⁾

18)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 『무라카미 하루키론』(平凡新書, 2006) pp.265~266

19) “고독한 군중으로 자본주의의 비참한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개인임을, 공허함을 즐긴다. 쓸데없는 공허나 부조리에 일일이 호들갑스럽게 대응할 만큼 어리지도 않다. 그런 의미에서는 도시생활자는 외면의 부드러운 몸짓에도 불구하고 터프한 내면의 소유자인 것이다. 이미 니힐리즘을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육체로 지니고 있는 새로운 도시생활자의 문학이라는 점에서 나는 하루키 문학의 애독자이다.” 가와모토 사부로, 상계서

20) 나카노 오사무(中野収) 「왜 <무라카미 현상>은 일어났는가」 『유리이카』(1989.6.) p.43

하루키는 미국에서 살면서 일본을 재발견하고 프린스턴에서 일본문학을 가르치면서 일본소설과 역사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프린스턴 대학 도서관에서 노몬한 사건을 연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은 불합리한 폭력을 여실히 드러낸 실례였고, 집단적 광기로 인해 개인이 무참하게 희생된 뛰어난 실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작가로서 일본과 정면으로 커미트먼트하기로 결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정치적 책임을 지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역사를 정면에서 직시하는 것, 그것도 전쟁의 역사를’. 그 말이 노몬한으로의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에 와세다 대학에서 폭력을 목격했고 한신 대지진과 지하철 사린 사건을 생각하면서 폭력이야말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해독하는 키워드라고 말합니다.²¹⁾ 여기에 하루키가 미국에서 살면서 커미트먼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는 1999년의 한국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그리고 ‘반핵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예전보다 유효하지 못한 것은 행동에 액츄얼리티(actuality)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이 이의제기의 기반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원폭에 대해 국민투표로 “노”라고 했다. 체르노빌의 재가 자기 몸속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불합리한 아픔이 개인 내부에 있어야 하겠지요. 물론 누군가가 말해줘야 하지만’이라는 1989년 5월 2일자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를 오버랩 해보면 하루키의 멘탈리티가 나름대로 역사인식과 정치적 책임에 열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야에 피해자로서의 한국인이 안 들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일본인의 집단 잠재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고모리 선생의 말을 빌리자면 “일본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으로 대중화된 무의식적 욕망”이 될 것입니다.

하루키가 『해변의 카프카』 등에서 드러내고 있는 역사의 소거와 폭력의 허용은 이 또한 고모리 선생의 저서에서 빌리자면 “정신을 지니는, 살아 숨 쉬는 존재”로서의 한국인, 중국인에 대한 현실인식의 결락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21) 이안 부루마 저, 石井信平 역, 『일본 탐방—무라카미 하루키부터 히로시마까지』(TBSブリタニカ, 1998) p.89, p.91

오오카 쇼헤이의 『들불(野火)』은 필리핀 전투 시 극한상황에 처한 일본군 패잔병의 인간 드라마를 그린 작품이지만, 작가의 시아에서 살해한 필리핀 여인에 대한 시선이 결락되어 있는 것은 역사의 소거나 왜곡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²²⁾ 역으로 전우들에 대한 애도의 염과 전쟁이라는 불합리한 폭력에 대한 상념이 교차하는 진솔한 작품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군이 최대 피해자가 된 노몬한을 얘기하면서, 하루키가 일본인 피해자에 대한 애도의 염만 표명할 때, 세계역사 속의 일본이라는 상대화 작업이 결락되어 있다고 태평양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한국인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을 통해 반추된 과거가 가해자라는 죄의식을 갖게 하는 한편,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라고 하는 피해자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태평양전쟁을 둘러싼 일본인의 집단심리가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딜레마는 일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국인들도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라카미 하루키를 받아들인 한국의 현대사회는 이러한 집단 의식에 대해 피해자로서 외부에 서있으면서 동시에 도시적인 감성과 정치적 상실감 등을 통해 하루키의 세계관을 내부에 수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란 개인의 윤리를 통해 공동체의 윤리를 반추할 수 있는 윤리의식을 제시해야 하는 존재가 아닐까요? 하루키 문학이 개인으로서 표출해야 할 물음은 이 시대의 모럴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모럴 의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동아시아 안의 존재라는 자각을 지니고 그 다양성을 제시하는 일 또한 작가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하루키 작품구조가 여성의 빈번한 죽음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개인의 자의식·정체성 탐구에 몰두하여 소수자=약자에 대한 시선이 결락되어 있기 때문이겠지만, 동시에 인류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모성은 자기희생을 통해 재생을 부여하는 존재였음도 고려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22) 김효순은 “작품이 패자의식을 그린 것임이 명백한 한 작품 속 전쟁을 구체적 전쟁이 아닌 보편적 전쟁으로 보고 그것을 초월하여 인간실존의 문제나 신의 문제만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작품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태평양전쟁의 당사자인 한국인 독자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배제시키고 작품 전체의 문학성만을 생각한다면 위화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고 하고 있다. 김효순 「일본 전후 문학의 한국어번역과 태평양전쟁 오오카 쇼헤이의 『들불』을 중심으로」 『일본문학 번역 60년 현황과 전망』,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프로시딩 참조.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렇게 애독자가 많은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루키는 역사인식을 얘기하고²³⁾ 커미트먼트를 얘기합니다.²⁴⁾ 그 시선을 동아시아에 돌려 “정신을 지니는, 살아 숨쉬는” 등 신대의 존재로서 중국인, 한국인을 인식한다면 하루키의 문화상품으로서의 파급력을 생각할 때, 좀 더 바람직한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발신할 수 있는 매체이자 문화표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태엽감는 새』에서 노몬한 전쟁에 혼다(本田)와 함께 참전한 하마노(浜野)라는 인물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사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제 직업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전쟁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된 전쟁이 아닙니다. 소위님, 이 전쟁은 전선이 있고 적에게 정면으로 결정을 청하는 그런 제대로 된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전진합니다. 적은 거의 싸우지도 않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패주한 중국군은 군복을 벗고 민중 속으로 숨어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누가 적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비적 사냥, 패잔병 사냥이라고 칭하고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식량을 약탈합니다. 전선은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데 보급이 따라오지 못 하므로 우리들은 약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를 수용할 장소도 그들을 위한 식량도 없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남경(南京)에서는 너무 지독한 짓을 했습니다. 저희 부대도 했습니다. 몇 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우물에 집어넣고 위에서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 밖에도 입으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짓도 했습니다. 소위님, 이 전쟁에는 대의고 명분이고 없습니다. 이걸 그저 서로 죽이는 살육입니다. 그리고 짓밟히는 것은 결국 가난한 농민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사상이고 무엇이고 없습니다. 국민당

23) 고베 대학은 “무라카미 하루키는 기억과 역사를 마주함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받아드릴 것을 제시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회로를 통해서 간신히 느껴질 지도 모르는 리얼리티라는 것. 사실을 지식으로 집적하는 레벨에서는 나올 수 없는 리얼리티를 되찾는 작업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 서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루키가 아시아를 보는 눈」 『고베 대학 동아시아 Week』(2006. 11. 16.) 발표문

24) “여러 의미에서 자신을 좀 더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은 미국생활에서 얻은 것이다. 미국은 개인에서 출발하지만 그 다음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한다. 몇 년간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무라카미 하루키, 한국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1995. 9.19일자)

도 장학량(張學良)도 팔로군도 일본군도 없습니다.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 어부의 자식이라 가난한 농부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서민이라는 것은 아침부터 밤까지 악착같이 일해도 먹고살 만큼밖에 벌지 못 합니다, 소위님. 그런 사람들을 의미도 없이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것이 일본을 위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습니다.(제1부, 260~261쪽)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시모토 바나나(吉本バナナ)나 에쿠니 가오리(江國香織), 릴리 프랭키(中川雅也) 등 지금 한국에서 고공비행을 계속하고 있는 작가들 가운데서 하루키는 역사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작가로 자리매김 될 수 있습니다. 소수자=약자에게 그의 시선이 돌려질 때, 그가 천명한 커미트먼트가 실천된다면 한 시대의 획을 긋는 문화표상으로서의 하루키의 존재의의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촉구하기 위해 고모리 요이치 교수와 같은 비판적 담론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의 연구자는 그러한 하루키 비판을 식민지배의 피해자로서 공감을 가지고 받아들이는데 머물지 않고 스스로의 문맥에 근거하여 재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루키 수용의 경위를 생각할 때, 하루키를 비판하는 것은 이미 하루키를 자기 내부에 받아들인 현재의 한국 상황에 자성의 눈길을 보냄과 동시에 한국의 문학적 전통을 비판적 함의도 곁들여 재인식하는데 연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이 아시아의 피해자로서 하루키에게 대답을 촉구하는 저 자신의 발화 위치를 명확하게 하고 쌍방의 대화를 생산적인 것으로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